

# 이틀 쓰고 열흘 단수... 완도군 가뭄 심각

완도군 평년 강우량 절반 수준 불과  
보길 부항수원지 저수율 11% 수준  
“제2수원지 건설, 정부 도움 절실”



전남 완도군 보길 부항수원지 모습.

완도군청 제공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도서산간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장기 가뭄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군 평균 강우량은 809mm로 평년 강우량의 57.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노화읍과 보길면 주민 8000여 명의 식수원인 보길 부항수원지 저수율이 11.6% 수준으로 2일 급수 10일 단수의 극단적인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완도군은 보길 부항천과 관정, 농업용저수지에서 매일 1320㎥를 보길 부항 수원지로 공급하고 있으며 매주 0.4ℓ 물병 3만병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또 지난달 2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정 개발 등 보조 취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가뭄 현장을 방문해 환경부 차관의 생활용수 확보 대책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의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상황이 급한 만큼 우선 계획을 세우고 재원은 전남도와 관계부처(환경부, 기재부 등)와 긴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보길 부항수원지

는 총저수량 42만 톤, 유효저수량은 37만 8000 톤으로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을 경우 노화읍과 보길면 주민들이 150여 일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군은 장기적인 식수 제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제2수원지 축조를 위한 예산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완도군은 현재 추진 중인 보길 제2수원지가 축조되면 50만 톤 규모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식수공

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측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2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보길 제2수원지 축조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장시간이 걸린다”며 “생존권까지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남규 기자 diskarb@

# 내년 5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석면조사 결과 공개·안전관리인 교육도 강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석면조사를 받야 한다. 다만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 9726곳 가운데 87.1%인 2만 5890곳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도 강

화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수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기간 등 작업계획에 작업 전 석면조사 결과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 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리인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영재 기자 jae-63@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어린이집 모습.

# 의료·재활 등 5대 유망 ‘서비스로봇’ 상용화 박차

중소 제조업종에 협동로봇 보급 확대... 우수한 기술력 중기에 금융혜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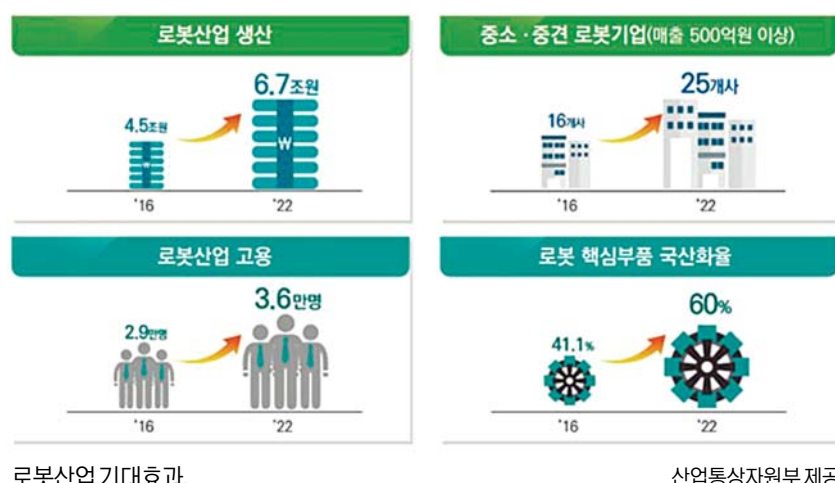
정부가 스마트홈 등 5대 유망 분야의 서비스로봇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종을 대상으로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의 보급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중소기업종을 대상으로 협동로봇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뿌리기업 등에 이 같은 로봇을 보급해 업계의 최저임금 부담과 인력난을 덜어 준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올해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50대 가량 시범 적용한 뒤 효과가 검증된 업종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스마트홈, 의료·재활, 재난·안전, 무인 이송, 농업용 등 5대 유망 분야에서는 서비스로봇 상용화를 추진한다.

5대 분야별로 개발 수요 및 성장성이



로봇산업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높은 서비스로봇을 선정해 주요 수요처의 공동 개발도 진행한다. 로봇 선도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로봇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산·학·연 전문가와 수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동·센서·제어 등 3대 로봇부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부품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을 위해 로봇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한다.

협동로봇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의·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의 기술개발과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로봇 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는 대출금리 차감 등 금융혜택도 지원된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로봇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강원도 횡성에서 스키로봇 대회가 개최되고 성화봉송 로봇, 안내 로봇 등도 선보인다.

이밖에도 8월 대전에서 로봇 융합 페스티벌, 10월 일산에서 국제로봇 콘테스트 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산업부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금융지원을 확정하는 확약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 로봇 기업은 보증료율 및 보증비용 우대, 대출금리 차감 등의 금융혜택을 받게 되며 향후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매분기별 우수 로봇기업을 추천해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협동로봇·서비스로봇 선도 프로젝트 추진, 혁신역량 강화, 신시장 창출 등 ‘지능형 로봇 산업 발전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gideunroy@

# 8년 이상 전세계약하면 집수리비 800만원 지원

최소 480만원서 최대 800만원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은 최대 800만원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용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하면 가구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은 집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

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을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수선비로 800만원을 보조받았으나 계약기간 8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년을 임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300만원을 환수한다.

최원만 기자 cnw6868@

www.sunmoon.ac.kr

# 네 안의 진짜를 깨워라!

# 선문대학교

# RE-CREATE YOURSELF

Re-create Yourself  
선문대학교

선문대학교는 학생 안에 숨은 무한한 잠재력을 봅니다  
오늘보다 낫날 내일의 가능성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대학  
새롭게 Re-create하는 선문대학교에서 진짜 '나'를 찾으십시오

국제인증 150년 서한 공